

지니어 순모임(4월)

인도 : 순장
대표기도 : 말은이

📍 찬 양 _____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_____ 다같이

📍 대표기도 _____ 말은이

📍 감사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기도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말씀 나누기 _____ 말은이

📍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1. 피아노키 개발을 통해 온 성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준비부터 완공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2. 2024년 임직자 선출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광고 _____ 말은이

📍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피아노키 개발이 올 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인생한컷(영정사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50명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4월 7일, 14일, 21일** 주일에 교회 로비 부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비용은 \$50입니다. (접수할 때 꼭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촬영은 4월 28일, 5월 12일, 19일 주일에 교회 앞 야외에서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S. D. Phelps 사 R. Lowry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성 자 의 귀 한 몸 날 - 위 하 여 -
 2. 거 금 도 날 위 해 간 - 구 하 심 -
 3. 주 님 의 심 자 가 나 - 도 거 고 -
 4. 만 가 저 온 혜 를 받 - 았 으 니 -

배 리 션 그 사 랑 고 - 마 와 라
 이 열 온 믿 음 이 아 - 움 나 니
 신 설 한 믿 음 과 마 - 음 으 로
 내 평 생 슬 프 나 줄 - 거 우 나

내 머 리 주 앞 에 조 아 려 하 는 말
 주 님 의 창 사 랑 고 맏 고 놀 라 와
 형 제 의 사 랑 과 친 절 한 위 로 를
 이 몸 을 온 전 히 주 님 게 바 쳐 서

나 무 엇 주 님 게 바 - 치 리 까
 찬 송 과 기 도 를 쉬 - 거 많 네
 뉘 게 나 베 풀 게 하 - 움 소 서
 주 님 만 위 하 여 늘 - 살 겠 네 아 멘

바울의 제자 세우기 골로새서 1:28-29절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제자 세우는 삶은 어떤 것인지 네가지 핵심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자 세우는 삶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모두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로새서1:28) 바울로 인하여 디모데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혼신의 삶을 드린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한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번째, 제자 세우는 삶은 예수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자란 예수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자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에 심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를 위해 전부를 던졌습니다. 복음 위해 인생을 불태운 사도 바울은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맞을 때도 그가 외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파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외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 협박, 매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정신 차리고 그가 한 일도 예수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가 외친 한 마디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였습니다. 베스도는 이런 바울에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제자 세우는 삶은 성령께 의존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고 신학자였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으며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이 뛰어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모든 사역의 근원이 성령께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일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살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4-5절입니다.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물을 주는 일 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꾸준하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넷째, 제자세우는 삶은 최선을 다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천지가 바뀌는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같은 대 사도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탄생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탄생,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기 까지 흘린 눈물과 땀이 있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나를 보며 “내가 이 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